

국제 학술논문에 나타난 '문화'에 관한 연구의 최근 경향 분석

- 환경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

Current Trend of Studies on 'Cultur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Design

박지연^{*} / Park, Jee-Yeon
이연숙^{**} / Lee, Yeun-Sook

Abstract

This study began to classify the studies on 'cultur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design overall. The classifying process adopted not the approach to preselect the criteria but the phenomenological inductive approach and content analysis method focusing on environmental design in order to understand which place the environmental design had taken. As a result, following aspects were reviewed: what is the area in which the studies on culture is made under the environmental design; what is the trend of using the word 'culture' in terms of logical connection; what is the level of approach to culture from the viewpoint of search, correspondence or application stage. On the whole, followings were drawn as conclusions. First, the interest of the studies on culture has been increased with time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rior design. Second, the word 'culture' has become to be used a lot as 'cultural', and was used together with traditional, enterprise and material. Lastly, culture was studied at a starting point by and large. Although the paper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confined to five kinds of journals, the analysis of them is helpful to preestimate the trend of studies on culture because they have propensity to lead the international professional academic world.

키워드 : 문화, 환경디자인, 문화 연구 경향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념 및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인 가치 및 성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 외에, 문화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측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월라치(Glenn Wallach)는 문화는 개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에서부터 가장 엘리트적인 또는 가장 상업적인 창의적 삶의 표현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함축한다고 하였으며, 윌리암스(Raymond Williams)는 문화에 삶의 전체적인 방법으로서의 평범한 의미라는 측면과, 발견이라는 특별한 프로세스와 창조적 노력으로서 예술 및 학습을 의미하는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¹⁾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디자인에서 문화는 일상적

인 것에서 예술적인 것에 이르는 폭넓은 범주에서 행해지는 창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이 창조하는 모든 인위적 환경과 이미지들이 모두 문화적 현상²⁾임을 고려해볼 때, 환경디자인은 그 자체가 문화적인 현상이 되며,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환경디자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룰 수 없다. 한편, 환경디자인이 전문분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기반이 필요하며, 학술적 기반이란 이론적 체계의 정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환경디자인에 필수적 요소인 '문화' 영역에 전문성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환경디자인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부르고 있으며, 이론

1) Bradford, G., Gary, M. & Wallach, G. eds., *The politics of culture: policy perspectives for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New York: New Press: Distributed by W.W. Norton, 2000, 1:17

2)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 문화 상징의 변증법, 서울: 솔, 1997, 32

^{*} 정회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과 박사과정

^{**} 이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바 ‘문화주의’³⁾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아가 문화의 사활이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어가 되고 있는 것이다.⁴⁾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문화가 화두가 된 최근의 시점에서야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를 연구의 주제로 다루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활발한 시작을 보이는 것은, 문화가 연구 기반 없이 확산되는 것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가 논제의 중심이 된 현 상황에서, 환경디자인의 필연성과 전문성 구축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 연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문화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에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제반 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문화가 학계의 논쟁적 중심에 놓이게 된 시기인 1990년대⁵⁾ 이후 환경디자인 분야의 ‘문화’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로서,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대로 드러내고 그 본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현상학적 방법’⁶⁾으로 접근하여, 내용의 특정한 속성이나 측면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인 ‘내용분석 방법’⁷⁾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12년이며,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인 분석에 비중을 두었고, 흐름을 객관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빈도 등의 기초 통계수치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연구 과정에 따라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는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이를 접할 수 있는 학술지의 종류는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비중으로 다각적으로 접근된다. 포괄적 범위에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역사가 긴 디자인계의 학술지에서 환경디자인을 하나의 분야로 포함하여 다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1990년

3)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 23집 문화이론의 생활과 한국사회, 1995, “문화담론과 연구방법론”에서 한국정신문화원 교수 박은영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상이한 문화들 간의 접촉이 일상화되고,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더불어 이제는 문화담론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야말로 ‘문화! 문화!’를 외치면서 ‘문화주의(文化主義 culturalism)’가 생겨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4)김복수 외,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보고사, 2003, 12

5)Bradford, G., Gary, M. & Wallach, G. eds., The politics of culture: policy perspectives for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New York: New Press: Distributed by W.W. Norton, 2000, 1에서 왈라치(Glenn Wallach)는 “1990년대에는 ‘문화’가 줄곧 대학과 기타 예술 및 문화 기관의 일련의 논쟁에서 중심적인 단어였다”고 하였다.

6)원승룡, 현상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32권, 1993

7)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1991, 375-81

이전부터 현재까지 1년에 3회 이상 안정적으로 논문을 발행하는 디자인계의 학술지 세 종류를 선정하였다. 한편, 후발 성격의 환경디자인 분야에서는 1990년 이후에도 1년에 3회 이상 안정적인 발행을 보이는 건축 및 도시 환경 관련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문화에 관한 논의는 이미 범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전반적인 경향 파악을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영어권의 학술지를 선정하였으며, 유럽에서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발원지인 영국과, 학계의 대표적 성격을 지니는 미국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학술지는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Journal of Design History”, “Design Issues”, “Journal of Architecture”,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등의 다섯 종류이며, 각 학술지의 성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상의 학술지에서 발행된 전체 논문 중 ‘문화’를 연구한 논문을 선택하기 위하여, 논문 제목에 ‘문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논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검색 과정은 문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문화를 제목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에서 문화를 중심 주제로 다룬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선택의 폭은 좁아지나 정확한 선택이 되므로 역으로 선택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표 1> 내용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국제학술지^{a)}

학술지명	발행 정보	발행 목표 및 범위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 3번/1년 · 최초 발행 : 1982년 · 주최국: 영국	예술 및 디자인 교육에 대한 사상, 실용적 개발, 그리고 연구 결과의 보급을 위한 국제 포럼을 제공한다.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광범위한 접근, 특히 이 분야에 정보를 주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고 운영한다.
Journal of Design History	· 3번/1년 · 최초 발행 : 1988년 · 주최국: 영국	디자인의 역사 분야에서 선두적인 학술지로서, 시각 문화(visual culture) 및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관련 연구 영역에 기여함은 물론, 공예 및 응용 예술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사 분야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Design Issues	· 3번/1년 · 최초 발행 : 1985년 · 주최국: 미국	디자인의 역사, 이론, 그리고 비평을 겸토하는 최초의 미국 학술지로서, 디자인 분야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문화적이고 지적인 논제에 대한 탐구를 촉진하며, 이론적이고 비평적인 논문들을 제공한다.
Journal of Architecture	· 3번/1년 · 최초 발행 : 1996년 · 주최국: 영국	전 세계적으로 건축의 미래와 그 수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대위법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인문과학 분야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전문적이고 산업적인 분야에서 비롯되는 관점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 3번/1년 · 최초 발행 : 1984년 · 주최국: 미국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의 유일한 학술지로서, 최근의 결과와 혁신적인 실제들을 기술하면서 학자와 실무 전문가를 위한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제공한다. 주요 분야는 건축 · 디자인 연구, 도시계획 연구, 건축 · 인테리어 · 도시 디자인 등이다.

^{a)} 표에 수록된 정보는 각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1차적으로는 ‘문화’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논문 제목 검색을 통해 선정되며, 2차적으로는 그 중 환경디자인 분야에 해당되는 논문이 선정된다. 2차적 선정은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음 장의 내용분석 결과 및 논의 부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1차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48편이며, 전체 발행 논문 수에 대

비해보면 총 1,092편의 4%에 해당된다<표 2>.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의 논문이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전체 발행 부수와 상대적인 해당 논문 수의 비율이 다른 학술지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서, 다른 실제적 분야보다 교육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빈도 높게 ‘문화’를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4년을 단위로 분기⁸⁾하였을 경우, 1997년에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의 논문 10편이 선정됨으로써 <표 3>과 같이 중기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2> 국제학술지별 분석대상 논문의 빈도 및 비율

학술지 구분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Journal of Design History	Design Issues	Journal of Architecture	Journal of Architectural & Planning Research	계
분석대상 논문 수	29편	9편	6편	2편	2편	48편
분석대상 학술지별 백분율	60%	19%	13%	4%	4%	100%
전체 발행 논문 수	331편	193편	199편	124편	248편	1092편
분석대상/전체발행 백분율	9%	5%	3%	2%	1%	4%

<표 3> 분석 대상 논문의 분기별 빈도

분기	전기 (1990년~1993년)	중기 (1994년~1997년)	후기 (1998년~2001년)	계
논문 수	10편	22편	16편	48편

분석의 단위로 선정된 이상의 논문에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내용 파악을 위하여, 분석의 항목으로서 키워드를 탐색하였다. 키워드는 최근 연구자가 초록과 함께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분석 대상 논문의 경우 키워드가 제시된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키워드가 제시된 경우라 해도 분석하고자 하는 관점에 맞는 내용을 대변하는 데에는 부족하므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키워드의 추출을 위하여 분석 관점에 적합한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또는 문장)를 분석 과정에서 추출하였다. 키워드의 추출은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초록이 없는 경우에는 서론 및 결론에서, 이러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최대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자의 관점이란 환경디자인의 어떠한 하위영역에서 문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는 용어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는가를 보는 것이었다. 이는 환경디자인이 어떠한 영역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주며, 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문화가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고 문화적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체계적 관점을 제시해준다. 또한 환경디자인에서 향후 문화 관련 연구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8) 시기적 경향 파악을 위해 4년을 단위로 하여 전기는 1990년~1993년, 중기는 1994~1997년, 후기는 1998~2001년으로 임의 분기함.

2. 디자인과 환경디자인 관점의 문화이론 고찰

본 장은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문화’ 연구가 어떠한 경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이전에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이를 위하여, 환경디자인 및 이를 포함하는 디자인 전반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문현 고찰하였으며, 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개념적 변화 및 문화를 연구하는 영역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디자인 분야에서 문화는 전통적으로 디자인에 늘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한적 요소⁹⁾로 여겨졌으며, 자연적 조건과 병행하여 문화적, 자연적 조건으로서의 배경적 요소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예술 운동인 다다이즘¹⁰⁾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가치의 심각한 결핍’이 세계대전을 발생시켰다는 주장¹¹⁾이 대두될 정도로 문화는 단지 배경이 아닌 적극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실제로 최근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는 계획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이반츠(Graeme Evans)는 문화적 계획 관점을 구성함으로써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문화의 영역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¹²⁾ 여기에서 문화는 계획의 원천을 이루며 다양한 관련 학문분야를 모두 고려하는 중심적 관점이 된다.

디자인에서 문화의 개념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므로 극소수만이 그 특권을 누린다는 “단선적인 엘리트 문화(unilinear elite culture)”, 20세기 후반의 문화 상품들을 일컫는 “지배적인 남성적 대중문화(dominant masculine culture)”, 그리고 고급(high)과 저급(low)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수많은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는 “다선적인 민중의 (하위) 문화(multilinear popular [sub]culture)” 등이 그것이다.¹³⁾ 이러한 세 단계의 발전과정은 문화의 대중화 현상을 의미하며, 디마지오(Paul DiMaggio)는 20세기 후반의 지난 30년 동안, 신성시 되었던 고급문화가 세속적인 민중 문화의 대두 및 체계화에 의해 침식된 것으로 보았다.¹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문화의 개

9)Richard P. Dober, Environmental Desig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69, 72

10)다다이즘(Dadaism)은 “다다”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듯이 기존의 예술체계를 부정하고 혼무주의이며, 일체의 전통, 사상, 질서 파괴를 주장한 예술 운동을 말함. (설명 출처: 조현경, 문화 아트 디자인 콘텐츠: 이론과 이미지 형성화, 서울: 진한도서, 2003, 34)

11)Malcolm Barnard, Art, design and visual cultur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2

12)Comedia, London world city: the position of culture, London: Lond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 1991, 78을 Graeme Evans, Cultural planning: an urban renaissanc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8에서 재인용.

13)Malcolm Barnard, 1998, 19-29

14)Bradford, G., Gary, M. & Wallach, G. eds., 2000, 47

넘은 소위 민주화의 양상을 떠면서 민중을 포괄하는 대중문화의 개념으로 전개해온 것으로 보인다.

문화 정치학(cultural politics) 또는 문화의 정치학(politics of culture)에서 문화는 주로 다문화적 사회를 포용하는 정책 개발로 제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다양성(open diversity)'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열린 다양성이란 새로운 가능성과 복합적인 정체성을 펼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의 원천을 말한다.¹⁵⁾ 즉, 문화적 정책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화적 차별을 정면으로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을 유도하여 풍부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비유럽의 소수민족인 아프리카계, 스페인계, 아시안계 미국인이 21세기에는 다수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¹⁶⁾를 경제학 이외의 분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진단함으로써,¹⁷⁾ 다문화성은 문화의 경제학(economics of culture)에서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¹⁸⁾이라는 논제의 대두와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¹⁹⁾ 이처럼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분야에서는 소수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디자인 전반 및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문화는 환경의 배경이나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디자인에서 계획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문화는 개념적 측면에서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지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대중문화의 개념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더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정책적 측면으로서 문화정치학 및 문화경제학 분야가 등장하였으며,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유럽중심주의가 재고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다원주의를 고려하고 창의력을 장려하는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다. 특히, 인위적 환경 전반을 다루는 건축 환경에 있어서 교육자들이 건축의 정설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 및 실례를 취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교육의 영역이 사회 전반의 문화를 고려하여 유색인종, 장애인, 여성, 아동, 노동자, 빈민 등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어, 학생에게 복합

도시의 증대와 세계화에 대응하는 건축을 창조할 수 있게 할 것²⁰⁾이 제안되었다. 이전 시대에 비해 문화는 환경디자인에서 창조의 적극적인 요소로서 활용되고, 실제 사용자를 고려하는 대중 지향의 관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수없이 많은 다원적 구성 원에 관심을 갖는다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 국제학술논문 내용분석 결과

본 장은 내용분석에 대한 결과 및 논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전반적인 디자인 분야 중 환경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해당되는 논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첫 번째 단계를 통해 선정된 환경디자인 분야 논문에 나타난 문화 연구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 연구 성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디자인 영역을 보다 세분하여 문화가 어떠한 하위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연구되고 있는가, 용어로서 문화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문화는 어느 정도의 인식 및 활용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1. 디자인 전반의 '문화' 연구 영역

1차적으로 선정된 디자인 분야의 논문 48편 중 환경디자인 분야²¹⁾에 해당되는 논문을 2차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환경디자인을 하나의 범주로 하고 그 외의 영역들을 범주화할 경우, <표 4>와 같이 환경디자인 분야, 교육 및 정책 분야, 제품 · 공예 · 그래픽 · 포장 디자인 등의 기타 디자인 분야, 전반적인 디자인의 이론 및 비평의 디자인 일반 분야, 그리고 예술 분야 등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 및 정책 관련의 연구가 많았으며, 환경디자인, 교육 및 정책, 예술 분야는 전기에 비해 중기에 높은 빈도를 보이다가 후기에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표 5>. <그림 1>의 영역별 분포는 환경디자인이 중, 후기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 및 정책은 점차 비중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환경디자인으로 전이되는 일면을 보여준다.

본 절은 환경디자인 분야에 해당되는 논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분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교육 및 정책 분야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분야들을

15)Sneja Gunew and Fazal Rizvi, ed, Culture, difference and the arts, St Leonards, NSW, Australia: Allen & Unw, 1994, xiii

16)다문화주의는 다원론적인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들을 설명하는 개념이며 다양성을 다원성, '인간존재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설명 출처: Ziauddin Sardar 저; 박만준 역, 문화연구, 서울: 김영사, 2002, 127)

17)James Heilbrun,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394-395

18)문화적 다양성은 지난 2001년 11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문명 간의 화해 및 대화와 더불어 문화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설명 출처: 김복수 외, 2003, 11-2)

19)Thomas Dutton ed., Voices in architectural education: cultural politics and pedagogy, New York: Bergin & Garv, 1991, xii

20)Thomas Dutton ed., 1991, 140

21)환경디자인에서 환경은 건설 환경 또는 인위적 환경을 지칭하며, 도시, 커뮤니티, 건축, 설내, 제품 등이 포함된다. (설명 출처: "연세대학교, 새 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학술집, 연세대학교, 2000", "이연숙 편,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 개인, 가족, 사회를 위한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본 연구에서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인 F.F.E.(Furniture, Furnishing, Equipment: 가구, 마감재, 비품)에 한정하여 환경디자인의 범주로 보았다.

유목화한 것이므로, 본 절의 결과로 제시된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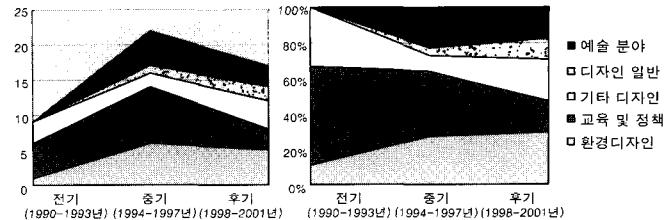
<표 4> '문화' 연구의 영역 관점에서 발췌된 키워드와 키워드 유형화 결과

유형 (논문 수)	키워드 ^a
환경 디자인 (13편)	터키 카펫에 대한 민족미학적 반응 ethno-aesthetic responses to a Turkish carpet / 전통문화, 건축, 디자인 traditional culture, architecture and design / 문화 회관 사례 cultural centers: one particular example / 주거건축 domestic architecture / 스코틀랜드 도시, 글래스고의 경험 Glasgow(city of Scotland)'s experience / 베를린의 문화 정치학 cultural politics in Berlin (capital city of Germany) / 덴마크 탁자의 문화적 형태 cultural form of a Danish table / 부엌의 물질문화: 식기류 material culture of the kitchen: pots and pans / 영국 대중 가구 popular British furniture / 테크놀로지 네트워크와 도시 내부의 회복 technology networks and the revival of the inner cities / 실험주택과 바우하우스 발전단계 experimental houses and the Bauhaus stage / 문화 시설을 통해 본 개념 concepts through cultural facilities / 산타 마르타 도시의 데이터 data from the Colombian city of Santa Marta / 크라코우 도시의 문화 공간과 도시 재건 Krakow(city of Poland)'s cultural space and its renewal
교육 및 정책 (15편)	예술 교육 art education /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및 디자인 교육 post-modernism and art and design education / 예술 교육에서 웨일스 디멘션 Welsh dimension in art education / 문화 정책과 청년의 참여 cultural policy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 예술 교육에의 영향 effects on art education / 여성 예술가 및 디자이너의 교육 education of women's artists and designers / 기술자주의, 예술, 문화정치학 technocracy, art and cultural politics / 예술학교의 조직 문화 organizational culture of art schools / 예술 교육의 대안적 모델 alternative model of art education / 예술 및 디자인 교육의 다문화적, 인종적 개선 multi-cultural and racist reforms in art and design education / 영국 예술 교육에서의 문화 비평 critical studies in British art education / 예술 및 디자인 교육에 대한 두 언어 및 두 문화적 접근 bilingual and bicultural approach to art and design education / 문화와 예술 및 디자인 교육 culture and art and design education / 예술과 다문화적 교육 art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구 네덜란드령 동인도지역의 예술 교육 art education in the former Dutch East Indies
기타 디자인 (9편)	디자인된 객체 designed objects / 포장(산업) 디자인 packaging / 미국 서남부 인디언의 장신구 Southwestern American Indian jewellery / 도자기 전시: 필라델피아 전시회 institutional display of these ceramics: Philadelphia exhibition / 작품에서의 아리크네 장르 Arachne's genre in textiles / 상품 개발 product development / 통문화적 디자인과 중간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cross-cultural design and intermediate technology projects /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반응 responses to visual images / 영국 그래픽 디자인 British graphic design
디자인 일반 (3편)	디자인의 재고 rethinking design / 현대 문화의 디자인 design in contemporary culture / 디자인 이론에서 자연과 문화의 분리 자연과 문화의 분리 nature · culture split in design theory
예술 분야 (8편)	예술에 대한 초기 관념 early conceptions of art / 인물화 drawings of people / 예술에 대한 가치 평가 valuation of art / 예술에서의 1990년대 문화적 경향 cultural trend in the 1990s in art / 원주민 예술과 문화 aboriginal art and culture / 민족문화에서의 순수예술 fine art in popular culture / 다문화 사회에서 예술적 전통 artistic tradi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 예술, 수공예, 국기문화 art, handicrafts, national culture
계	48

a 키워드 중 해당 분야를 밑줄 표기하였으며,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원문을 병기함.

<표 5> '문화' 연구의 영역 관점에서 본 유형별 논문 수

유형	분기	전기 (1990-1993년)	중기 (1994-1997년)	후기 (1998-2001년)	계
환경디자인		1	7	5	13
교육 및 정책		5	7	3	15
기타 디자인		4	2	3	9
디자인 일반	-		1	2	3
예술 분야	-		5	3	8
계		10	22	16	48



(a) 빈도 누적영역형그래프 (b) 백분율 누적영역형그래프

<그림 1> '문화' 연구 영역 관점의 분기별 분포도

이상에서 분석 대상 논문 48편 중 환경디자인 분야 논문 13편을 추출하였으며, 다음절에서는 추출된 논문을 대상으로 환경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문화'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2. 환경디자인 분야의 '문화' 연구 경향

(1) 하위영역 관점에서 본 '문화' 연구 분야

환경디자인은 도시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제품까지의 범위를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환경디자인 분야의 논문 역시 도시 및 건축물에서 가구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디자인의 하위영역을 도시 환경, 건축 환경, 실내 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실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가구나 비품 및 마감재는 실내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질적인 실내 환경 디자인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유형에 따라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 7>과 <그림 2>와 같이 도시, 건축, 실내 환경 분야는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도시 환경은 중기에 많아졌다 다시 줄어들었고, 건축 환경은 중기에 많았다가 후기에 적어졌으며, 실내 환경은 반대로 중, 후기로 가면서 점차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만으로 건축 및 도시 환경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가 줄어들고 실내 환경 측면에서의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전반적으로 건축 및 도시와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실내 환경인 미시적 관점으로 문화적인 거론이 많아질 것이 예측된다.

<표 6> 하위영역 관점에서 발췌된 키워드와 키워드 유형화 결과

유형 (논문 수)	키워드 ^a
도시 환경 (5편)	테크놀로지 네트워크와 도시 내부의 회복 technology networks and the revival of the inner cities / 폴란드의 도시, 크라코우의 문화 공간과 도시 재건 Krakow(city of Poland)'s cultural space and its renewal / 베를린의 문화 정치학 cultural politics in Berlin (capital city of Germany) / 스코틀랜드 도시, 글래스고의 경험 Glasgow(city of Scotland)'s experience / 콜롬비아 도시, 산타 마르타의 데이터 data from the Colombian city of Santa Marta
건축 환경 (4편)	실험주택과 바우하우스 발전단계 experimental houses and the Bauhaus stage / 문화 회관 사례 cultural centers: one particular example / 주거 건축 domestic architecture / 전통문화, 건축, 디자인 traditional culture, architecture and design
실내 환경 (4편)	영국 대중 가구 popular British furniture / 부엌의 물질문화: 식기류 material culture of the kitchen: pots and pans / 덴마크 탁자의 문화적 형태 cultural form of a Danish table / 터키 카펫에 대한 아동의 민족미학적 반응 children's ethno-aesthetic responses to a Turkish carpet
계	13편

a 키워드 수와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 같은 키워드가 반복되더라도 그대로 기입하였으며,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원문을 병기하고, 년도별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도시 환경”에 나타나는 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문화가 도시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양상, 특정 도시의 문화 공간 및 그 도시의 재건 문제,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특정 도시의 경험 사례, 특정 도시의 사례를 통해 본 주거정착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다. 즉,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문화, 전통적인 문화, 변화하는 문화, 문화적인 요소 등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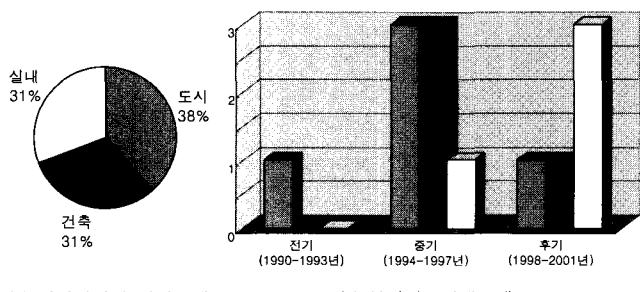
“건축 환경”的 문화 연구를 정리해보면, 바우하우스의 실험 주택과 발전단계를 통해서 본 문화적 패러다임, 신경향을 반영하는 문화회관 사례, 지역 고유성을 적용하는 주거 건축, 민속 전통을 고려하는 건축과 디자인 등이다. 이상은 역사적 경향에 대한 고찰,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는 문화 회관, 지역 문화를 고려하는 주택, 전통 문화를 고려하는 건축에 대한 연구, 문화 시설의 영향력 논의로 함축된다.

“실내 환경” 분야의 문화 연구의 경우에는, 과거 변화의 시기에 영국 민중 가구에 나타난 물질문화, 근대 영국 부엌의 식기류를 통해 본 물질문화, 덴마크 탁자의 문화적 형태, 터키 카펫에 대한 민족미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 각각은 과거의 디자인 제품에 대한 물질문화 분석과, 특정 지역에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 문화적 형태에 대한 탐구, 그리고 특정 지역의 디자인 제품에 대해 민족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미학적 관점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표 7> 하위영역 관점의 유형별 키워드 빈도

유형	분기	전기 (1990-1993년)	중기 (1994-1997년)	후기 (1998-2001년)	계
도시 환경		1	3	1	5
건축 환경		-	3	1	4
실내 환경 ^a		-	1	3	4
계		1	7	5	13

a 실내 환경은 내부 공간과 이를 구성하는 가구, 비품, 마감재 등을 포함하는 영역임.



(a) 하위영역별 원형그래프

(b) 분기별 막대그래프

<그림 2> 하위영역 관점의 논문 수 분포도

즉, 도시 환경에서 문화는 배경으로서의 문화와 전통 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변화하는 문화를 고려하며 문화적인 요소를 탐색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건축 환경에서 문화는 과거 역사에 대한 고찰, 전통을 고려하고 지역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시대적 요구 및 역할이 변화한 문화적 기능의 건축물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실내 환경에서 문화는 역사 속의 디자인 제품을 중심으로 물질문화를 탐구하는 것에

서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형태와, 디자인 제품에 대한 문화권별 반응 연구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건축과 실내 제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나 시설을 다루는 논문들이 건축 환경 분야로 분리되었다. 실제로 오늘날 실내 환경은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실내 건축이나 실내 제품을 포함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건축 환경과 실내 환경 분야를 통합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실내 디자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맥락적 차원에서 본 ‘문화’의 용어 사용

문화라는 용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논문 제목에서 ‘문화’가 포함된 키워드를 모두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키워드는 “~ 문화(~ culture)” 유형과 “문화적 ~ (cultural ~)”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키워드 1개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8>과 같이 어떤 유형의 문화(~ 문화)라는 표현보다는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무엇(문화적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분기별로 보았을 때 <표 9> 및 <그림 3>과 같이 “~ 문화” 유형과 “문화적 ~” 유형이 전기보다 중, 후기에 전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문화가 점차 활발하게 사용됨을 보여준다.

<표 8> ‘문화’ 용어 사용 관점에서 발췌된 키워드와 키워드 유형화 결과

유형 (키워드 수)	키워드 ^a
~ 문화 (5개)	기업문화 enterprise culture / 물질문화 material culture / 전통문화 traditional culture / 물질문화 material culture / 물질문화 material culture
문화적 ~ (8개)	문화적 공간 cultural space / 문화적 패러다임 cultural paradigm / 통문화적 관점 crosscultural perspectives / 문화적 변화 cultural change / 문화 정치학 cultural politics / 문화적 정체성 cultural identity / 문화적 형태 cultural form / 문화적 가치 cultural values / 통문화적 연구 crosscultural study
기타 (1개)	문화, 정치학, 구현 culture, politics and representation
계 ^b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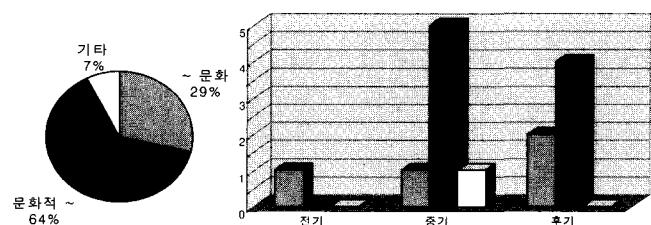
a 키워드 수와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 같은 키워드가 반복되더라도 그대로 기입하였으며,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원문을 병기하고, 년도별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b 키워드 수의 합으로서 논문 전체 개수인 13보다 큼.

<표 9> ‘문화’ 용어 사용 관점의 유형별 키워드 빈도

유형	분기	전기 (1990-1993년)	중기 (1994-1997년)	후기 (1998-2001년)	계
~ 문화		1	1	2	4
문화적 ~		-	5	4	9
기타		-	1	-	1
계		1	7	6	14

a 키워드 수의 합으로서 논문 전체 개수인 12보다 큼.



(a) 유형별 원형그래프

(b) 분기별 막대그래프

<그림 3> ‘문화’ 용어 사용 관점의 키워드 수 분포도

“~ 문화” 유형의 경우, 시간 순으로 나열해보면, 기업문화, 물질문화, 전통문화, 물질문화, 물질문화 등이 사용되었다. 중, 후기에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특정 사물을 대상으로 그 속에 내재된 문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 유형은 “문화적”이라는 용어와 합성어인 “통문화적”이라는 용어의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문화적”이라는 용어는 패러다임, 변화, 정체성, 가치 등의 개념적인 성격에서부터 공간, 형태 등의 구체적 성격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통문화적”이라는 용어는 통문화적 관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문화를 비교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패턴을 탐구하는 통문화적 연구(cross-cultural research)의 일면을 보여준다.

기타 유형으로는 “문화, 정치학, 구현”이라는 키워드가 1개 있었다. 문화가 정책을 통해 구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환경디자인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990년대에 오피스 환경이 기업문화와 연계해서 발달해온 것을 반영해주는 기업문화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다. 한편, 문화적이라는 단어는 개념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구체적 측면에서도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통문화적 연구가 시도되었고, 문화의 연계선 상에서 정책과 이의 구현이 논의되었다.

(3) 인식단계 관점에서 본 ‘문화’ 연구 특성

환경디자인 분야의 연구에서 ‘문화’는 어떠한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논문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는 수동적인 (passive) 수준에서 행위 지향적인(action-oriented) 적극적인 (active) 수준까지의 선상에서 인식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적 축은 문화적인 의미 파악 및 요소의 발견을 중심으로 하는 “탐색” 단계, 문화적 변화 및 경향 등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 단계, 그리고 실질적인 환경디자인의 실행을 의미하는 “적용” 단계 등의 세 단계로 설정되었다. 이상의 관점에 따라 발췌된 핵심내용으로서의 키워드를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는 탐색 단계의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대응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그림 4>. 분기별로 보면 “탐색” 단계의 논문은 전기에는 없다가 중, 후기에 4편씩, “대응” 단계의 논문은 전, 중, 후기에 1편씩, “적용” 단계의 논문은 중기에만 2편 나타났다<표 11>. 즉, 중, 후기에 탐색의 연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는 빈도는 낮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용의 수준에 이르는 중기에만 나타났고 빈도도 낮은 편이었다.

“탐색”的 내용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고대 문화 도시 재건의 문제점, 바우하우스에 의해 제안된 문화적 패러다임, 20세

기 중반 영국 민중가구의 물질문화, 도시환경에서 문화적 변화를 장려하는 디자인 사용 사례, 근대 초 영국의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문화, 덴마크에서 타원형 탁자가 특별한 우월성을 갖고 사용되는 이유, 개인이나 집단이 주거정책 과정에서 대응방법을 조절하는 문화적 요인, 터키 카펫에 대한 세 문화권 아동의 반응에 대한 통문화적 연구 등이다. 즉, 탐색의 내용은 전통의 재건에서 역사 고찰을 통한 문화 패러다임 및 물질문화와, 현대에서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사례 및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형태, 비교문화(통문화적) 연구로 이어졌다.

“대응”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품 생산 및 업무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통해 도시 경제를 재창출하게 하는 지역의 권위와 업무 정책,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

<표 10> ‘문화’ 인식단계 관점에서 발췌된 키워드와 키워드 유형화 결과

유형 (논문 수)	키워드(핵심내용) ^a
탐색 (8편)	폴란드의 고대 문화 도시인 “크라코우”가 악화된 세 가지 주요 원인과, 심각한 장애 및 한계에 부딪힌 개조 행위 three main reasons for the degradation, and renewal activities which, have encountered serious obstacles and limitations / 실험주택과 바우하우스 단계를 통해 본 바우하우스에 의해 제안된 ‘문화적 패러다임’ ‘cultural paradigm’ proposed by the Bauhaus (through the experimental house and the Bauhaus stage) / 1939년부터 1965까지 영국 민중 가구의 물질문화(포괄적이고 비교적 종성적인 인류학적 맥락) material culture (a broader and more neutral anthropological context) of popular British furniture, 1939~1965 / 도시 환경, 즉 “글래스고”에서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디자인의 사용 using design to promote cultural change in an urban environment, namely Glasgow’s / 근대 초 영국의 음식 가공 및 준비, 그리고 가사활동의 일상적, 공간적, 관계적 구성요소로서의 작용인 물질문화 food processing and preparation, and the material culture of such operations, as constitutive of the practical, spatial and relational household in early modern England / 타원형 탁자가 덴마크 주택 및 공공 기관에서 특별한 우월성을 지니는 이유 to account for extraordinary prominence in Danish homes and public institutions of tables with a ‘super-elliptical’ shape (cultural form) / 개인과 집단이 주거 정착 프로세스 및 환경에 있어서의 범동과, 경제적 변화 및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조절하는 문화적 요인 cultural factors condition the way that groups and individuals respond to economic changes & opportunities, and some variations in squatter housing processes and environments / 터키 카펫에 대한 아동의 민족미학적 반응: 세 문화 간의 통문화 연구 children’s ethno-aesthetic responses to a Turkish carpet: a cross-cultural study in three cultures
대응 (3편)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품’ 생산과 업무 조직의 새로운 형태 조성을 통해 도시 경제 재창출을 촉진하는 지역 권위와 업무 관련 정책 how the politics of work relates to local authorities’ initiatives to promote urban economic regeneration and the production of ‘socially useful products’ / 베를린의 이질성이란 생산적이고 문화적인 잠재력을 인식하는 문화 정치학의 의제 agenda of cultural politics to recognize the productive cultural potential of Berlin’s heterogeneity / 민속 전통과 관련된 문화적, 교육적 문제점: 다음 세대가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법 cultural and education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olk traditions: how the traditional values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region’s younger generation can be preserved
적용 (2편)	탈식민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베네풀리 전통과 예술가, 건축가, 미래 주택시공 업자에 대한 그 적용성 vernacular tradition in terms of post-colonial theory and its applications to the education of artists, architects, and homebuilders of the future / 신경행례제와 전승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유럽 연맹의 문화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문화 회관) one particular example (cultural center) to illustrate this new movement (new forms of leisure and heritage promotion have become combined in European Union cultural programs)
계	13편

a 핵심내용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원문을 병기함. 키워드만으로 각 유형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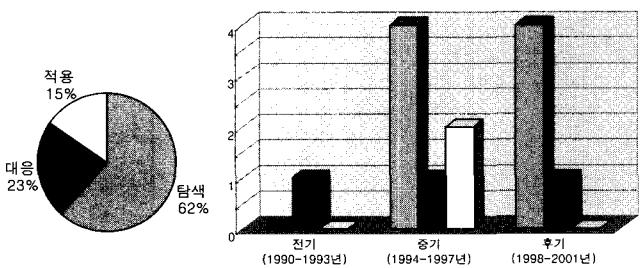
을 위한 문화적, 교육적 논의 등이다. 각각은 새로운 기업 문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통성 및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교육

을 의미한다. 이는 디자인 전반에서 교육 및 정책 분야에 높은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환경디자인 분야 내에서도 교육 및 정책을 통한 대응 단계의 움직임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적용’의 내용은, 탈식민주의²²⁾ 관점에서 본 베네쿨러²³⁾ 전통의 주택 분야에 대한 적용성 연구와, 레저와 전승이라는 개념을 반영하는 문화회관 사례 분석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 특성을 적용하는 주거 환경 디자인과,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반영하는 문화 시설에 대한 논의로 함축된다.

<표 11> ‘문화’ 인식단계 관점의 유형별 키워드 빈도

유형	분기	전기 (1990-1993년)	중기 (1994-1997년)	후기 (1998-2001년)	계
탐색	-	4	4	8	
대응	1	1	1	3	
적용	-	2	-	2	
계	1	7	5	13	



<그림 4> ‘문화’ 인식단계 관점의 분기별 누적 영역 분포도

전반적으로 환경디자인에서 문화는 탐색의 수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으며 대응 및 적용의 차원에서 각각 교육 및 정책을 통한 연구와 지역 고유성을 활용하고 신경향을 수용하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문화’가 논쟁적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하며, 특히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문화 연구를 총괄적으로 재고해 볼 기회를 갖기 어려우므로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이다. 체계화 과정은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현상학적이고 귀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디자인 전반에서 환경디자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

22)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주의 이후’라는 뜻이 아니다. 탈식민주의는 이전 식민지들이 독립 후에 어떻게 서구와 비서구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지 분석하고 비서구의 저항과 재건설의 연속적 과정을 설명한다. (설명 출처: Ziauddin Sardar, 2002, 119)

23) 베네쿨러(vernacular)는 ‘독특한 문화를 재창조·해낼 수 있는 디자인의 원천적 개념’이며, 디자인에 적용될 때는 의식적인 사고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관계없는 ‘일상적인’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임. (설명 출처: John F. Pile 저; 박대순, 이재국 역. 현대 디자인 사조: 목적, 형태, 의미. 서울: 창미사, 1985, 48)

악한 다음 환경디자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환경디자인에서 문화가 어떠한 하위영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용어로서의 문화는 어떠한 맥락의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고, 연구에 나타난 문화의 인식 단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각각을 언급해보면, 먼저, 환경디자인에서 ‘문화’가 연구되어온 하위영역은 도시, 건축, 실내 환경디자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도시 환경에서는 배경으로서의 문화에서 문화적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가, 건축 환경에서는 역사 고찰에서 전통 및 지역성을 활용하는 연구가, 실내 환경에서는 물질문화 및 문화적 형태 탐구에서 문화권별 반응 실험 연구가 있었다. 즉, 각 영역에서 문화는 배경적 요소이자 탐색적 요소이며, 활용의 요소이고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으로, 환경디자인에서 용어로서의 ‘문화’는 ‘문화적’이라는 표현이 점차 활성화 되었으며, 그 의미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측면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문화’라는 용어는 환경디자인에서 오랜 관심을 가져왔던 전통 문화와 새롭게 인식되는 기업문화, 그리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물질문화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디자인에서 ‘문화’ 연구는 탐색, 대응, 적용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역사적 고찰과 현대 사례 분석 및 문화권별 비교에 의해 문화적 요소를 탐색하고, 교육 및 정책을 통해 문화적 경향에 대응하며, 베네쿨러 디자인 및 문화적 신경향을 수용하는 디자인이 연구되었다. 아직까지 문화적 측면을 탐색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임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택하였으며, 질적인 속성 파악 및 전개에 도움이 되는 체제로서 수량적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다섯 종류의 학술지에 국한되나 이는 학제를 선도하는 국제 전문 학술 논문으로서, 이의 분석은 학술 기반 구축의 흐름을 파악하는 대해 개념적 틀로서의 관점을 제시하며, 향후 문화 관련 연구에 대한 이해 및 진행에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 문화 상징의 변증법, 서울: 숲, 1997
- 김복수 외,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보고사, 2003
- 연세대학교,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학술집, 연세대학교, 2000
- 원승룡, 현상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32권, 1993
- 원승룡·김종현, 문화 이론과 문화 읽기, 서울: 서광사, 2001
- 이연숙 편,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 개인, 가족, 사회를 위한 환경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조현경, 문화 아트 디자인 콘텐츠: 이론과 이미지 형성화, 서울: 진한도서, 2003
-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 23집 문화이론의 쟁점과 한국사회, 1995

10. 환경디자인연구회편; 배현미·김종하 역, 환경디자인, 서울: 기문당, 2000
11. John F. Pile 저; 박대순·이재국 역, 현대 디자인 사조: 목적, 형태, 의미, 서울: 창미사, 1985
12. Ziauddin Sardar 저; 박만준 역, 문화연구, 서울: 김영사, 2002
13. Bradford, G., Gary, M. & Wallach, G. eds., The politics of culture, New York: New Press: Distributed by W.W. Norton, 2000
14. Graeme Evans, Cultural planning: an urban renaissanc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15. James Heilbrun,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6. Malcolm Barnard, Art, design and visual cultur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17. Richard P. Dober, Environmental Desig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69
18. Sneja Gunew and Fazal Rizvi, ed, Culture, difference and the arts, St Leonards, NSW, Australia: Allen & Unw, 1994
19. Thomas Dutton ed., Voices in architectural education: cultural politics and Pedagogy, New York: Bergin & Garv, 1991
20.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1990~2001
21. Journal of Design History, 1990~2001
22. Design Issues, 1990~2001
23. Journal of Architecture, 1990~2001
24.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990~2001

<접수 : 2003. 4. 30>